

연중 제31주일

기도서 470면 (다해)

제1독서 : 이 사 66, 10-14C

제2독서 : I고린 7, 25-35

복 음 : 마 태 18, 1-5

순정이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
같이 되는 사람이다

(마태 18, 3)

하느님의 보석

해마다 십일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위령성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죽음도 묵상하는 달입니다.

메이이라는 랍비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의 두 아이가 집에서 죽었습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체를 이층에 옮기고 흰 베로 씌워 두었습니다. 랍비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내게 굉장히 값진 보석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갑자기 와서 맡겨 두었던 보석을 다시 돌려 달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걸 얼른 입자에게 돌려드리시오.” 그러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사실은 방금 하느님께서 귀한 보석인 두 아들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짙막한 예화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식을 잃고 몇 해 동안 우울증에 살아가는 아내나 엄마에게 조금 위로의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며칠 전에 남편이 「암」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하고 절망에 빠진 아내에게 더 깊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데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더라도 미구에 닥칠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평화를 간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앞에 소개했던 이야기는 단순한 예화로써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지혜를 주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보석이라는 사실과 이 귀한 보석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져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귀한 보석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수용적인 자세가 될 수 있고 보다 평화스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죽음을 두고 의학적이거나 사회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이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 누

구도 죽음을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삶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그 분만이 죽음의 참뜻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살고 있는 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보석입니다. 하느님이 먼저 부르신 보석들이 천국에서 더욱 반짝반짝 빛나도록 기도하면서 또한 불리움을 받을 나의 보석을 그 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쁘게 내어드릴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십일월의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이 그 분 것이기에…….

(지혜서 11, 26)

업 기봉 신부/오룡동천주교회



나는 하느님의 보석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살고 있는 한 우리모두는 하느님의 보석입니다.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계신가



이 원구 (아브라함)

“너희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는 백년 후에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들녘의 흙 위에는 말 없는 달빛이 비치고 쓸쓸한 바람만이 스쳐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이 생생한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애를 쓰는 일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는 일도, 가족들의 생계와 안위를 걱정하며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일도 한 자락의 꿈처럼 어디론가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돌아가신 우리의 선인들도 지금 우리와 같은 감회를 느꼈으리라.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흙 속에 있는가?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방금 묻고 돌아선 무덤을 우리는 기억한다. 좀 더 오래 되어 누가 묻혔는지도 모르는 무덤을 우리는 많이 본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다 허물어지고, 아예 흙이

되어버린 무덤은 또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 밟히는 흙속에도 이 살다간 사람들의 흔적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흙속에 하는 것은 그분들의 흔적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는가? 하늘로 올라갔는 초에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 숨결을 불어 넣었으니 또한 그렇게 말할 으리라. 그분들이 내쉬던 하늘로 흩어져서 오늘 우 흡하는 공기중에 섞여 있 전의 사람이 숨쉬던 공기 년 전의 사람이 호흡하고 전의 사람이 내뿜은 숨결 우리가 들이 쉬고 있는 그러나 공기는 모든 사람 물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대체 있는가? 그리스도는 “나 지계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이 로 돌아간다”고 하셨다.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 각해 본다. 우리는 모두 느님으로부터 나왔다가 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리스도는 하느님과 일치 만, 것처럼 한 몸이 되지 들마저도 하느님은 그 품 너히 거두어 주셨을 것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하시지 않았던가!

그분들은 또한 우리의 에 있다. 지금 우리는 들 분들을 이렇게 마음 속에 고 있지 않은가!

<전북대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 간청합니다.
반드시 오고 말 이별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멀리 가야 할 친구들과의 이별
집을 떠나야 할 자녀들과의 이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부름을 받아 당신께 돌아갈 때 말입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본향으로 데려가신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주었으므로
저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만일 제가 단 한 마디로써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해도
그것이 당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저는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심 여중고 이전 (移轉)

8년 7월에 설립되어 40여
전동 성당과 함께 전주의
손꼽혀 왔던 성심 여
치명자산 밑(전주시 대성
로) 이전하게 되었다. 성심
의 이전 논의는 오래 전부터
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워낙
작업이라 실질적인 계획을
고 있던 중 경기전 확장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착수 할 수 있었다.
성심 여중고 자리로 중앙국
이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달라는 전주시의 요청을
었다. 이 요청은 우리 재
서도 반가운 제안이었다.



그로인해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현 치명자산 밑 대성동에 자
리를 잡을 수가 있었다. 참으로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곳
은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청소년
들에게는 말없는 설교의 장소
이기 때문이다. 동정부부 루갈다
와 요한의 삶은 자라나는 소녀들
에게 진한 감동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오 주님이시여, 나는 희망해 왔나이다.

이제 그 시간이 왔다-너에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토록
'끔찍한' 시간이며, 나에게 해방의 시간
인 그 시간이 왔다. 십자가의 길에서, 나는
지금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어둠이 있었지만, 지
금부터 '날'이 밝아오고 있다. "당신 안에
서, 오 주님이시여, 나는 희망해 왔나이다.
알렐루야!"
나는 너에게 무덤을 초월하는 형제의 사
랑과 열려 이외에는 아무것도 줄것이 없다.
사람은 결코 죽지 않으며 나는 지금 모든
사람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의 사랑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서 이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견고
해지며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나는 방금 주님의 최상의 은총인 나의
마지막 성체를 모셨다. 그리고 나는 내 마
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자와 함께 오후 4

시에 최후의 수난으로 들어설 것이다. 불
쌍한 죄인인 나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
기소서'와 나의 마지막 '대영광송', 마지막
신앙고백인 '사도신경'과 '형제들과의 기
도'로써,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마지막 찬미를 드렸으니-아, 나는
그분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그리고
이제 가장 거룩한 최후의 순간이 오기 직
전에 이 마지막 성체가 나에게 주어진 것
이다. 기쁨에 가득 찬 나는 "가라-미사가
끝났도다"하고 말하며, 피와 사랑과 사도
직과 그리고 특히 고통의 끈을 통하여 나의
가슴과 단단히 묶여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한다. "주여, 이 좋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시 나치정권에 대항하다
가 처형된 칼 람페르트 신부가 처형되기 2
시간전 남동생에게 쓴 편지.

초남성지 성역화공사 - 마무리지어

"천주교인들! 순전히 말뿐이
야!"-초남 부락 주민들의 일성
(一聲)이다.
호남 교회의 못자리, 호남의 첫
사도 유항검(아우구스티노)과 동
정부부 순교자 이순이(루갈다)와
유중철(요한)의 삶의 현장인「초
남 부락」이 박정일(미카엘) 주교
에 의해 성지로 축성된지 2년 반
만에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 지었
다. 세계 어느 성지 못지 않게 거
룩한 땅이라고 말만 해 왔을 뿐
무성한 잡초밭으로 복혀 오므로
해서 받아오던 주민들의 비난을
일단은 막은 셈이다. 물론 앞으로
할일이 태산 같지만 그곳에 유
항검의 본가(本家)터이며 동정부
부의 수련장이었음을 확신 할 수
있었던 것은 '녹강 뱀이'라고 부
르던 주민들의 증언과 아직도 번

전주교구 사제피정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
회의 사람인 사제들로 하여금 매
년 일주일 이상의 피정을 규정하
고 있다. 이 사제 정기피정이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천호
피정의 집에서 있었다. 우리 교구
5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신부님(70
여명)들이 참석 가능한 신부 100
% 참석) 안동 교구의 교구장이신
두 봉(벨라도) 주교님을 모시고
가진 이 피정의 주제는 "미사"
평생을 두고 거행하는 예식이건만
항상 새로운 제사요, 잔치인 미
사에 대한 진지한 묵상으로 이어
졌다.

어떤 미사든 미사를 거행할 때면 첫미사인양 마지막미사인양 거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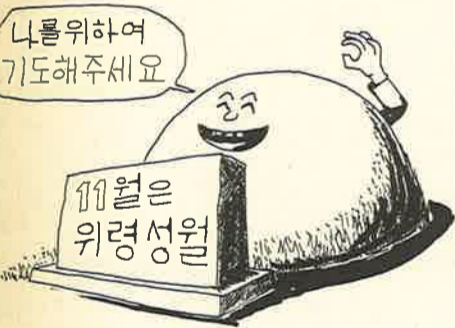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실제로 만나는 거룩한 이
성사. 하나 밖에 없는 아들까지
바치는 성부의 사랑과 자신의 살
한점, 피 한방울까지 우리의 밥과
음료로 내어주는 성자의 사랑,
죄 많고 비천한 우리 피조물을 하
느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성령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순간이건만
자칫 형식으로 지나쳐 버리기 쉬
운 안타까움이 있다. 이에 두봉
주교님은 "어떤 미사든, 미사를
거행 할 때면 첫 미사인양, 마지막
미사인양 거행하라"고 누차 강조
하였다.

그리고 교우들이 실제로 미사를
은혜로운 미사로 체험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기도가 필요
함을 역설하시며 너무도 거룩한
예식....., 그래서 너무도 속되게
거행하고 있지 않느냐를 깊이 반
성하게 해주신 은혜로운 시간이
였다.



창하고 있는 야생 미나리. 이는
당시 역적 죄인으로 몰려 그의
집터를 파서 연못으로 만들어 다
시는 그곳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던 역사적
사실과 꼭 부합했기 때문이다.
순교자 유 항검, 이 순이, 유 중
철의 시복과 시성을 기원하는 우
리가 꼭 한번, 아니 열번 백번 참
배해야 할 거룩한 땅이다. 관광
버스에 몸을 싣고 먼 곳으로 떠
나기에 앞서 그 분들의 무덤이
있는 치명자산에 오르기에 앞서
꼭 한번 초남이 성지에 들려 보자.

숲 정이 산책



나를위하여
기도해주세요

나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준
다는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기 위한
세계성체대회가 열렸는데... 감옥속
의 애국민초, 터전을 빼앗긴 노점상,
저임금 저곡가에 시달리는 노동자 농
민 모두에게 정의의 실현 및 민초를
위해 체적을 드신 예수의 살과 피가
절실할 때 위정자들은 「사랑=타협과
화해」일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곳곳에
유포.

이제는 나눈다는 의미가 무언가,
왜 그리스도는 체적을 드셨는가를 우
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

◇...지난 10월6일 밤 방영된 MBC
TV「박경재 시사토론」의 주제가 당초
예정된 추곡수매가 책정문제에서 느
닷없이 남북대화 문제로 바뀌어 방영
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을



빛고 있는데, 시사토론 제작진은 이날
토론에 「추곡값 얼마이어야 하나」를
놓고 농민단체와 학계·농림수산부
등의 팽팽한 대립을 다룬 예정으로
전국농민협회와 학자농수산부 양정국

장 등에 출연 교섭을 벌여 왔으나 농
수산부의 보고를 받은 청와대측에서
압력을 가해 결국 무산되었다는 것.
결국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상한 관심
을 모으고 있는 추곡수매가를 납득할
만한 대책없이 「뜨거운 감자」로 만
여기는 관료들의 행태에 비난이 집중.
◇...공영방송인 KBS가 자체와 인력
을 재벌그룹의 홍보물 제작에 동원되
어 물의를 빚고 있는데-.

지난 1일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
장에서 열린 삼성그룹 체육대회의 홍
보물을 제작하는데 KBS중계차가 이
틀이나 동원됐다.

MBC와 함께 5공시절 「앵무새 한
쌍」이었던 KBS가 능히 하고도 남을
일이라고 수근수근.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영화!
대학생 지시인이여! 이번 보는 이유는!

ROMERO

본신분, 또한번 디모실분은 서두르세요
지 연장상영!! 코아극장

정창희
정형외과 의원

의 학 박사 정창희 (안셀모)
정형외과전문 이성숙 (안젤라)

전주시 전동 1가 192-3
(전동성당 옆)

☎ 84-2926
자택 6-1625

정형외과 개설
〈교우우대〉
물리치료실

서울의원

가정의학과
정문의
의 학 박사 **이상재**
조 중 자 (베로니카)

전주시 덕진동 1401-19(덕진광장앞)
☎ 75-0550,0551

유럽·이스라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 7차출발 : 90년 1월 5일
(17박18일)

파리-루르드-리옹-스위스-밀라노
-아시씨-로마-바티칸-이스라엘-
이집트-방콕

전일관광

조선 (안토니오)
6-6666~8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전주오거리 (신) 서강정형외과 앞
(구) 나정형외과 앞

☎ 74-1123, 3-6709

처음부터 신앙 하나로 맺어진 부부 - 원 분도·김 루시아

예수께서는 일찌기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현실에 발붙이고 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衣·食·主를 잊고 지낸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일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여기 성경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온 부부가 있다.

元준혁(분도 71), 金필애(루시아 70) 부부

이들은 말 그대로 현실 생활에 대한 염려를 접어둔 채 한평생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꾸려왔다. 보통의 경우 같은 자손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히 지내야 할 7순의 나이에 全州中央성당 에령회장직을 맡아 이성을 떠나는 교우들의 임종을 지켜봐온 이들 노부부는 그 일을 보람으로 알고 있기에 힘든 줄 모르겠노라고 얘기한다.

「제가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 뒷수습을 해 준 교우가 즐잡아 5백명은 넘을 겁니다. 부르기만 하면 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갔지요. 냉담하던 분들도 임종이 가까와오면 우리를 청하더군요.」

元분도회장은 「나이를 먹었어



도 기력이 있어 다행으로 여겨왔는데...」하며 말꼬리를 흐린다. 이는 지난 5월1일 다락에 올라갔다 떨어져 중상을 입은 후 여지껏 기동이 불편하기 때문. 게다가 부인 金루시아씨가져. 병간호에 지쳐 몸져 누운 까닭에 노부부의 안타까움은 여간 큰 것이 아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하지만 도움을 청해도 몸이 아파 달려가 볼 수가 없으니 그게 안타까와요.」

황해도 송화군 운유면 태생인 두 사람은 처음부터 신앙 하나로

맺어진 부부였다. 이들은 다른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서로가 믿는 집안 자손이라는 것만을 귀히 여기며 부부의 면을 맺었다. 元분도, 金루시아 부부가 金北과 인연을 맺은 것은 1·4후퇴 때 群山땅으로 피난을 오면서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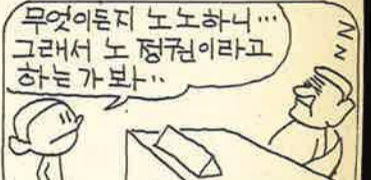


당시 群山부둑가 움막집에서 3년을 살면서도 부부는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남편은 저녁마다 피난민 자녀들을 모아 놓고 교리문답을 가르쳤으며 부부 모두 전교에 힘쓰는 한편 敦育동 성당 신축시에는 기꺼이 막일도 했다.

부부는 또한 자신들이 가르쳐 온 예비신자들을 위해 서울로 이주하려던 계획도 포기하고 金北과 金堤의 공소에서 전교회장으로 신앙을 펴는데 노력해 왔다. 이제 全州로 이주한 지도 20년. 슬하에 한 자녀도 없지만 수많은 대자, 대녀가 친자식처럼 느껴져 조금도

외롭지 않다는 노부부는 「그것도 주님의 뜻이었지요」라고 얘기한다. 「이제껏 교회일을 해오면서 먹고 입을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그럴 수는 없었겠지요.」

요심이 (848) 김병오



뿌리를 찾아서 수류성당

김제군 금구면 원평리의 수류성당은 김제군내의 전교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신학문의 싹을 뿌렸고, 나아가 이곳에서 많은 신부, 수녀를 배출함으로써 빛을 내는 곳이다.

1천8백년대 후반, 조정의 천주교 박해로 교세가 지리멸렬되어 가는 중에서도 외국인 신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삼산공곡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교세는 유지되고 있었다. 1895년이 넘어서면서 시대가 다소 변할때 말셀로 구신부가 배재와 금구에 부임했다. 구신부는 외국인 성직자에 대한 탄압이 조금 완화되어 적당한 곳으로 옮기려는 중에 수류(水流)에 있는 전주 이진사의 재실을 판다는 말을 듣고 그 집을 사들여 1896년 이곳으로 이사했다.

1900년 구신부가 전임되고 배신부가 부임했고 48간이나 되는

성당을 지어 준공할 때가 1907년 가을이었다.

이로써 당시 호남에는 되재(邊山升峙) 나바위(江景, 현재益山郡 望聖面華山里) 수류등 3개성당이 정립(鼎立)하여 튼튼한 맥을 이루게 되었다.

수류에서는 배신부가 1908년 인명(仁明)학교를 세워 호남각지

“ 新學問의 전당 ”



로부터 모여드는 많은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벽촌임에도 불구하고 金北지역의 문화발상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당시 이 학교에는 단발(斷髮)을 하지 않으면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한문외에 신학문을 가르쳤었다.

이때 수류본당은 김제, 정읍, 부안, 고창, 순창, 담양, 장성까지 관할, 큰 본당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또 이곳은 동양에서도 신부가 많이 나온 곳으로 유명하다. 10명의 신부(김영규, 정재석, 서정수, 박문규, 김반석, 김영일, 법석규, 박영규, 안복진, 윤양호)와 수녀 5명이 배출됐다.

1차대전으로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배신부가 1920년 9월 대구

성유스디노 교장으로 전임되고 유신부가 부임했다.

6·25때 소실된 수류성당은 1960년까지 김제본당에 속하게 됐고 현재의 건물은 1959년 교우들의 손으로 재건된 것이다.

1960년 3월 12대 담임으로 金반석신부가 부임, 본당을 교통이 편리한 院坪으로 옮겨 본당의 구실을 넘겨주게됐다.

교구소식

1. 재정심의회: 14일(화) 재정심의회 오전10시30분 교구청 회의실
2. 참사·재정활동회의: 14일 오후2시
3. 성탄연수회: 일시-11.19(일) 오전9시 장소-가톨릭 센터 내 용-대림과 성탄의 이해, 성서구조분석, 대림복음 성극, 대림초, 대림환 공작, 캐롤송, 성탄 레크레이션 등 참가비-A지역5,000원 B지역4,000원 C지역3,000원 신청11월8일까지 교육국
4. 교리교사 수첩신청: 신청-교구청 교육국(85-0041) 기간-11월8일까지 대금2,000원(예정가격)
5. 전주교구 본당 성가경연대회: 11월5일(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성심여고 강당
6. 각본당 전례분과위원, 미사해설자,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피정: 1989년 11월 11일 오후3시30분-12일 오전8시 장소-천호회관의 집 접수-11월11일(당일) 오후3시30분-가톨릭센터에서(4시-천호로 출발) 참가비-5개도시6,000원 그외본당-5,000원 준비물-미사도구, 필기도구 문의처-교구청 홍보국(85-0041)
7. 가톨릭 사회복지회(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11월6일 10시30분
8. 군중후원회 월레미사: 11월13일(월) 7시 카톨릭센터
9. 성전 보수를 위한 순창 고추장 판매: 전라북도 최남단 시골본당(순창) 설립 30주년(1990년)을 맞으면서 성전보수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순창전통의 장을 준비했습니다. 고추장1kg-8,000원 된장1kg-3,000원 간장1l-1,000원 연락처(0674)2-2234 순창성당 사목회
10. 테글라 성소모임: 오늘 오후2시 성바로로 딸 수도회(성바로로 서원)-고졸이상 27세 미만 수도성소에 관심 있는 분

천주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삼희관광(주)

담당: 이 정 화 (울리안나)

해외여행 상담 및 문의
전화: (0652) 87-5532 (대표)
위치: 전주전신전화국 옆

- 주단
- 침구
- 혼수전문

부인주단

김 한중(요한)
황 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84-7294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범 디포
☎ 84-2628

최수원피부관리

문 제 성 피부 > 전문
유럽식체중관리

최 수원 (엘리사벳)
보건소 앞 덕수의원 옆 ☎ 84-7880

금·은·보석·시계(예물상담)
가 보 당
최유호(사무엘)·김정자(모니카)
중앙성당 ↔ 전주시정 중간지점
☎ 84-2243

정신과학 세미나

주제: 고도의 정신 및 두뇌활용법

효과: 스트레스 해소, 수면조절, 신앙 심화, 기억력·집중력 증강, 타인 콘트롤법, 목표성취법,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테크닉 등.....

일시: 11월 6일(월), 9일(목) 오후 2시, 7시(2회)

장소: 이리 동원예식장(중앙로국민은행 옆)

강사: 박 은성(요한) 원장
문의처: 855-6807
참가비: 1,000원

일본명상

반대는 불쾌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하다. 그렇지만 반대는 언제나 아침보다는 나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장애물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앞으로 나아가기 쉽다.

헬더 까마라.

명동피부과의원

독서자는 주님앞에서 읽듯 읽어야...

■ 치명자산 개발을 위해
-성체대회 한 번만 더 열자!
-금번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에 참석한 우리 전주교구 신자 총 수는 일반 팔천여명! 새벽2시, 3시부터 출발하여 식사까지 거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곳에 갔다 오기까지 드는 경비만 해도 줄잡아 일인당 만원은 족히 들었을 것이다. 그 액수는 자그만치 1억8천만원이다. 기타 잡비 포함하면 2억은 훨씬 상회했을 것. 바로 그만큼의 정성과 열성을 한 번만 더 보여 주자. 그러면 치명자산 성지가 세계적 성지로 개발 된다. 약 5억이 소요되는 치명자산 성지 개발 현금의 현재까지 모금 현황은 2억 1천여 만원. 그것도 절반 가량은 교황청을 비롯한 추기경님과 타지역 교우들의 헌금이고 보면, 우리 교구 교우들의 정성은 너무도 부끄러울 정도다. 단 한번의 미사, 단 한번의 교황님 구경을 위해서는 그토록 열성을 다 하면서도 우리 선조 순교자들의 현양을 위해서는 이토록 인색하다니..... 이해가 안간다. 교황님이 아무리 훌륭하신들 우리 순교자 만큼이나 하라! 성체대회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수백 수천년을 물려줘야 하는 성지 개발 만큼 중요하다 하라!
순교자의 후예들이여! 힘을

모으자! 한 달전 서울 성체대회 때 보여 주었던 그 열성을 한 번만 더 발휘하자!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가문과 재산과 목숨까지 바쳤다.
■ 사랑의 자선 사진전시회
서신동 본당이 성전건립을 위해 흘려온 땀과 노고는 아는 이는 다 아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번에는 사진전과 지점토 공예를 선보였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 전주교구 가톨릭사진동우회 회원 전에는 50여점의 정성스런 사진 예술품과 몇달동안 공들여 빚은



서신동 본당 여교우들의 지점토 작품들 30여점이 아름다운 가을을 빛냈다.
첫 전시회였던 만큼 준비도 예산도 빠듯했지만 선의의 마음에 동참해준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40여점이나 판매되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전시회를 준비해온 마음들도 참관을 하는 마음들도 뿌듯하고 기뻐했는데, 그것은 한 마음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은

총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
■ "독서자는 주님앞에서 읽듯 읽어야"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짜여진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그것이다.
교구 사목지침에도 들어있는 전례생활심화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지적할 것이 있다. 다름아닌 말씀의 전례부분의 '독서'에 대해서이다. 사회자가 미리 준비시키지 않아서 성서의 장·절까지 다 끝났는데도 독서자는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일, 독서자가 장·절까지 다시 읽고 있는 일, 미리 읽어보지 않은 채 독서대에 서서 엉뚱한 곳을 읽다가 주례사제가 일러주면 처음부터 되풀이 읽는 일, 너무 크거나 너무 적게 읽어 교우들에게 초조감을 주는 일, 제대를 오르고 내릴 때 제대쪽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깊은 절을 잇는 일, 독서가 끝나고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를 정중하고도 엄숙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소홀함 등이 얼른 눈에 띄는 요점들의 문제점들이다.
오는 11월부터 12일까지는 교구전체 각본당 전례담당자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이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은 미사의 막중한 의미를 알고 전례의 고귀해야 할 가치도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여러분이 교회」 - 로메로주교 강론서



오스카 A. 로메로 대주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대로 사랑하는 조국 엘살바도르의 민중과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이다. 일생을 사제로서 또 주교로서 봉직해온 그는 1980년 3월24일, 자객의 흉탄에 맞아 숨을 거둬으로써 찬란하게 삶을 끝마쳤다. 엘살바도르 대주교로서 재임한 3년동안 그는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자로서 그들의 대변자로서 심금을 울리는 강론내용이 실려있다.
J.R. 브룩맨/성한성 옮김
반양장, 103면
성바오로 출판사/1,200원

알고 봅시다

원고를 기다립니다

매달 첫주에 만들어지는 큰 주보 숲정이에 실릴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이야기나, 체험담, 교회에 하고 싶은 바램이나, 시정되었으면 하는 문제점까지도 기탄없이 써 보내주시면 교회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침판 등에 실릴 원고 : 3~4매 내외
체험담 : 5매 내외 기타 : 3~4매 내외
보내실 곳 : 52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85-0041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1. 형제회 정기총회: 11일 오후2시 미납된 회비 납부하시기 바람
2. 모임: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후 복사단 어머니모임-7일 9시 성심회, 성가대원례회-7일 어머니미사후, 성령기도회-9일 7시30분
3. 사목회 월례회: 10일 7시30분
4. 꾸리아 월례회: 12일 2시 (각본과별로 계획서 작성제출바람)
5. 가정방문: 7일2시-중노2가13반 미사8시-박태복 8일9시-중노2가14반 미사11시-김병용 9일9시-중노2가15반 미사11시-박종길 9일3시-중노2가16반 미사8시-김진섭 10일9시-중노2가17반 미사11시-노광열
6. 사목협의회 회장 선거의 날: 12일 매미사후
7. 소록도 방문: 치명자의 모후 단원, 구중노5구역 가족전례

□지남주봉헌금: 616,590원 □교무금: 275,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합용
수녀원 84-2276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1. 회의: ①반장회-다음주 공식미사후 ②프란치스코3회-다음주 오후2시
2. 알림: ①가정방문-11월8일(수) 17반~18반 11월15일(수)19반~20반 ②예비자율 인도합니다. 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후에

□지남주봉헌금: 486,960원 □교무금: 305,00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수녀원 87-0229

※ 국가 보안법을 철저히 하라.

1. 오늘: 구역장월례회(공식미사후), 레지오토론회(오후2시)
2. 가정방문: 7일-전5, 후6반 8일-전7, 후8,9반 9일-전10,11, 후12반
3. 자모회: 7일 오전10시30분
4. 청년회 정기총회: 다음주 오후3시(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5.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6. 교무금 및 신축헌금 그리고 도자기와 율겐신입금을 다가을 년 말을 대비하여 미리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7. 금주전례: 해설-함문권 복사-이정분 오수환
봉헌-박동식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연희 복사-박해근 윤인홍
봉헌-안봉운 부부

□지남주봉헌금: 335,540원 □교무금: 268,000원
□신축금신입총액: 149,459,836원
※ 구속 사제관단 석방하라.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1.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후 2.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후 3. 울뜨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4. 성가경연대회: 오늘 성심학교 대강당
5. 자모회: 9일 오전10시 6. 안나회: 9일 오전10시 7. 여성분과회: 11일 오전10시 8. 꾸리아: 12일 오후2시 9. 청년회: 12일 저녁미사후
10. 신년도 예산안 제출: 19일까지(각부서 및 심신단계)
11. 교무금 완납 바랍니다.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최정환 ②이은희
봉헌-최정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상인 독서①황인하 ②장옥남
봉헌-황인하씨 부부

□지남주봉헌금: 477,590원 □교무금: 879,900원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정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직환

1. M.B.W기초피정 연수: 11월13일~18일까지 오후7:30~10시 회비5,000원 사무실 접수
2. 꾸리아모임: 공식미사후
3. 구역장 반장 모임: 11월7일 화요일 10시
4. 까리따스회 모임: 11월6일 월요일 10시
5. 신축헌금 미수금 납부해 주십시오.
6. 교무금 미수금 납부해 주십시오.

□지남주봉헌금: 325,050원 □교무금: 726,000원
□신축헌금: 15,331,000원(입금14,011,000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현
수녀원 84-4804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연령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 모임안내: ①안나회-오늘11시미사후(교육관) ②클라라회-금주8일(수) 10:30(교육관) ③울뜨레아-다음주 11시미사후(교육관) ④모니카회, 테레사회-다음주(15일) 수11시
2. 성당조경을 위하여 헌금하여 주신분께 감사: 임영희100,000원 본당신부님300,000원 익명221,000원 익명50,000원 어머니성가대307,000원 박경환100,000원 김영자100,000원 노창원30,000원 김숙자, 조정선 각100,000원 계1,408,000원
3. 중고생 예비자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6시미사후
4. 청소담당: 금주-효자2단지 아파트 다음주-거성국민APT, 거성APT

□교무금: 1,191,000원 □주일학생헌금: 22,600원
□중고생헌금: 40,34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1. 꾸리아: 공식미사후
2. 성가정회 단합대회: 6일 단공계곡
3. 가정방문및 구역미사: 9일 오후 내어두
4. 가정방문: 8일(수)-원의암,계월 10일(금)-묘동
5.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89 교무금 속히 납부 바랍니다.
6. 부활 영세자 교리: 오늘부터 시작
7. 금주전례: 해설-이옥동 독서①양주태 ②이석남
봉헌-안정만 박순귀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남현준 ②강경자
봉헌-김영신 안정기씨 부부
8. 전례분과위원, 미사 해설자, 지휘자, 반주자 피정: 11일 오후3:30~12일 오전8시 천호회정의 집

***전동** 사제관 본당 86-5789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선태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성전보수 헌금 바랍니다. *11월은 위령성월

1. 돈보스코회: 오늘 공식미사후
2. 구역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7시30분
3. 반기도회: 7일-10일 반미사 7일-전동3반 8일-동교동2반 9일-중남동2반 10일-동완산동 1반
4. 유아세례: 11일(토) 오후3시
5. 예비자환영식: 다음주일(12일) 공식미사후(강당)
6.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7. 구역장 반장 모임: 13일(월) 오전11시
8. 자모회: 다음주 9시미사후

□금주보수비헌금액: 1,793,400원 □현재모금총액: 80,802,617원
□금주보수비헌입액: 600,000원 □현재신입총액: 193,686,299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무
수녀원 87-0711

1.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후
2. 중고생 정기총회: 9:00 중고생 미사후
3. 성모회: 10일(금) 어머니미사후
4. 독배공식미사: 10일(금) 오후3:00
5. 이서공식미사: 10일(금) 오후7:30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김태진 ②김옥희
기도-김홍두 정영호
차주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분병식 ②구문순
기도-김창선 이담연

□지남주봉헌금: 430,500원 □교무금: 541,000원